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다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James W. Knox's Sermons on Prayer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다

James W. Knox' s Sermons on Prayer

By James W. Knox

© 2012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이우진
펴낸이	김영균
초판발행	2012.5.23.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립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www.ilovekjb.com
표지사진	안성식 jetspeed@paran.com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48-0

정가 7,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400주년 기념판(2011)”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제1장 하나님의 뜻 _10

제2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_44

제3장 이기심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_60

제4장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_85

제5장 사역자를 위한 기도 _104

제6장 반복해서 하는 기도 _122

제7장 금식에 관한 성경적 교리 _138

제8장 기도 응답을 막는 것들 _156

제9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_171



역자 서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쉬운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날 기도만큼 오해 받고 남용되는 성경의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더욱 응답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악순환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모두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하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요 14:13)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아예 하나님께 전달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제시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요 14:13).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는 것이

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서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 대부분의 기도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롬 8:28-29).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성공하여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삼아야 할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빌 3:13-14).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구한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위해 한 기도는 바울이 육체

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구한 것인데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성도들의 겉사람의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고 그 동안 구한 것으로 인해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여덟 번에 걸쳐 설교한 Prayers의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 것입니다. 시리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미 소책자로 발간했던 “하나님의 뜻”을 제1장으로 넣었습니다. 책이 아닌 설교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요약했으며 많은 부분을 의역했습니다. 비록 의역하고 요약했지만,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장의 끝에는 해당 장의 요약을 넣었습니다.

이 책은 진리침례교회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2012년 봄에 이 책을 교재로 하여 “성경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는 www.ilovekjb.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2년 5월

역자 이우진



제1장 하나님의 뜻

본문은 갈라디아서 1:1-5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들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을 성경 밖으로 끌어내어 경험과 감정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것이나 경험한 것이나 본 것이나 상상한 것이나 머리 속에 갑자기 떠오른 것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느낌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선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롬 10:17)고 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상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영들을 시험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말들은 성경에 없는 말들이며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감정에 근거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떤 색의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 중간에서 멈춘다고 해서 “그 차를 구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어느 주택을 구매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완벽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두 남녀가 결혼한 후에 구원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10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 어느 것에도 베네수엘라나 콩고 중 어디로 선교를 떠나야 할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고국에 남을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의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행하기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원한다면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기독교 방송이나 이상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명백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요일 2:16)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모두 이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어떤 색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위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모든 문이 열려 있었지만 결국 지옥에서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책이나 강연이나 신문기사나 영상 등 정보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독자가 살을 빼는 데 관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꾸미는 것에 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책과 정보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고 성령님도 내주해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치

않는다면 이런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늦잠을 더 자거나, 아니면 바르게 살기보다 죄를 지으면서 살거나,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9-10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서 15:31-32도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로마서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로부터 떠나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고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위해 매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통해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만일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통해 배울 것도 없기 때문에 더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나를 더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성도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조차도 자신이 불신자들로부터 나와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거의 매일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온갖 욕설과 불경건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모여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 뒹굴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더러운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노래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5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사

랑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TV와 뉴스미디어를 통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러분을 세뇌시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그 교회가 자신을 즐겁게 해 주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도 남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되었어.”라고 말하는 경우,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벽했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별로 와 닿지 않는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에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음…이 설교는 저 형제를 두고 하는 거구만…”

교회에 와서도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가 자신을 배려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로 기분이 언짢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와 악수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와 악수를 해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평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4.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제 저녁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매우 거칠게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내 머리 속에 한가지 강력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것은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러한 경험에 따라 인도에 가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

로 행한 것이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인도를 받은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뜻을 모두 밝히 드러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이미 알려 주셨는데 자신에게만 특별한 뜻을 알려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섬길 누군가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다윗은 이것에 관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36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고 묻혀서 자기 조상들에게 이르러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웃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가면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동생, 형, 누나, 아들, 딸부터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 지역에서부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것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마을과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특별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특별한 지역에 가기 전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각자 섬기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부분에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

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목사님이 대신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목사가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자와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진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거리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5.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갈 6:7-8) 제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과 간증을 망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죄인이 마귀의 뜻대로 행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마주치더라도 미움과 쓴뿌리와 복수심과 야비한 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불평할 것보다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혜택이며 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개인 승용차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없어도 편리한 교통의 혜택을 입고 편하게 교회까지 왔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집에 에어컨이 있고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굶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지만 이전 세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

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버릇없는 어린 아이마냥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수한 감사로 이루어진 기도를 드러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 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 보십시오.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가 결국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6.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15-16을 보십시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비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정죄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

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평한다고 해서 반론을 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거짓 비방에 맞서기 위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 비방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 안에서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비방해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로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에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어리석은 대로 두고 무식한 자는 그대로 무식한 대로 두고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간에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뒤돌아보면 기독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간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개신교가 천주교를 비방하면 천주교는 군대를 보내서 비방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를 비방하면 개신교도 군대를 보내서 비방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전쟁은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의 전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신교든 구교든 기독교 자체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상대방을 문자적으로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비방은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대포와 총과 고문 기구로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하는 상대방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모든 비방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비방을 받는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비방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방을 없애는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절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쉽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하고 알기 쉽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더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 11: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만이 특별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받았습시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더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성경 이외의 더 특별한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감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다른 문제들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갈 1:3-4)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여전히 세상과 일치시킨 채 살아 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교리와 음악도 세상을 쫓아갑니다. 교회가 이 악한 세상

과 어울리기 위해 이 세상에 맞추고 심지어 성경까지 이 세상의 구미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떨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 7:1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주 일요일 이후로 7일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날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일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담아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인생 중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찬양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고 설교는 조금 나아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시들어 버렸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많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없고 적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라는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새사람에게

속한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나이가 지긋한 형제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형제의 여행의 모든 부분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으로 연결되어있었습니다.

7.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17-18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19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이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

지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계속해서 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8.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6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음행을 조장합니다. 이 세상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열정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조절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앞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삽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 봐 걱정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영화와 TV와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답게 살라고, 거룩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매우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9.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과 갈라디아서 1장과 에베소서 1장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에 대한 것을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도 영적인 은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도 영적인 은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하메드의 사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하메드의 뜻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종교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 받은 회사원이고 의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 받은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것이 중요하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을 섬길 수도 있을

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모두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체라도 그것이 없으면 장애인입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어도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온전한 몸이 아닌 장애를 지닌 몸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받은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받은 은사를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모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선 교회가 있다면 모두 오늘 당장 망하고 문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단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어떤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만일 어떤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사가 되려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미 그런 교회는 차고 넘치도록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르심 없이 단지 목사가 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목사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일 수도 있고 그냥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사원일 수도 있고 그냥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일 수도 있고 그냥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집을 구매할 것인지 월세로 들어갈 것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혹은 홈스쿨을 할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홈스쿨을 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도 훌륭한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정규 학교에 보내느냐 아니면 집에서 가르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고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적인 자동차가 있고 영적인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10.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26-28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처럼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도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중보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떤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무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기도를 응답 받지 못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는 정말 거의 응답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더디게 응답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목록을 보면서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많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의 응답 받지 못한 기도 목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3:23, 4:7). 성령님께서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혹은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해서 쓴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교를 마치면서 -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본 위의 열 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Know it).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Do it). 셋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Do it completely). 매우 단순합니다. 알고 행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Know it, Do it, Do it completely).

로마서 12:1-2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치던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본문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어떤 일은 받으시지는 않지만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선하면서 완전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들을 보면서 저 자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저 자매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하신 뜻”보다는 “받으실 만한 뜻”이 더 낫겠지 싶어 “받으실 만한 뜻 자매”에게 프리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신부 친구 중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자매”를 발견하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세 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하시거나 흠이 없으시거나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거나 한 아들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이이시거나 조연자이시거나 강하신 하나님이지거나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거나 평화의 통치자이신 게 아니라 놀라우신 이이시며 조연자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는 아버지이시며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것은 선하신 뜻입니까, 받으실 만한 뜻입니까, 완전하신 뜻입니까? 음행을 하든지 음행을 하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음행하지 않으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것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고 받으실 만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받으실 만하지는 않지만 선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2:2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드리거나 받으실 만하게 드리거나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이지 각각 다른 단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절도 하나님의 세 가지 뜻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모두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 거룩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면서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엡 6:6)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

라.”(골 4:12)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바랍니다.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거나 그만두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약

1.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육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나 장소나 특정한 일에 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습니다(벧후 3:9)
3.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 혹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뜻”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벧전 5:10, 갈 6:7-8)
4.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롬 12:2). 이것은 하나님의 열 가지 뜻에서 자

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5.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1)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롬 12:1-2).
- (2)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갈 5:25, 요 16:13).
- (3)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6.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당장 나를 향한 자신을 뜻을 모두 계시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 (1) 아직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2) 아직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 (3)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7. 하나님의 열 가지 뜻

- (1)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요일 2:16, 갈 1:3-4).
- (2)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롬 1:9-10, 15:31-32)
- (3)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고후 8:5).
- (4)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행 13:36).

- (5)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5:18, 갈 6:7-8).
- (6)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벧전 2:15-16).
- (7)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벧전 3:17-18, 4:19).
- (8)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살전 4:3-6).
- (9)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고전 1:1, 고후 1:1).
- (10)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롬 8:26-28).

8.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세 가지

- (1) 하나님의 뜻을 알라(롬 12:1-2).
- (2)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엡 6:6).
- (3)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라(골 4:12).



제2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같은 설교를 듣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종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빛이 없이 어둠 속에 다니느냐? 그는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니라.”**(사 50:10)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핑계를 대든지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빛 가운데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우리는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도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침례와 성경이 가르치는 침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구원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형식과 예식이 구원과 관련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마음과 믿음이 구원과 관련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이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신약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시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시고 고급 승용차를 주시고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과에서 왜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동기로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 받지 못합니다. 자아중심적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95%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러한 기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에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도 없이 그저 어떤 말만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다음 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확실한 가운데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두셨

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13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저는 무엇인가를 빼고 읽었습니다. 제가 읽지 않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읽지 않은 부분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요 14:13-14)

이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본 뒤에 다시 이 구절로 돌아와서 이번 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하기 위해 대단한 성경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때도 있을까요? 쉬운 질문이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십니다. 다시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실 때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백지수표를 받은 것과 같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구해도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라는 말만 붙이면 응답 받게 된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꼭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13을 인용하기만 하면 어떤 것을 구하는 기도든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욥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욥은 건강과 재산과 가족 등 목숨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왜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욥기 9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내 몸을 씻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랑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마저도 나를 몹시 싫어하리이다.”**(욥 9:30-31) 욥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종교와 자기의(self righteousness)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깨끗이 씻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몹시 싫어하시며 도랑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려 갈 수도 없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보고 선행을 하는 것을 보면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감동하실까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십니

다.

계속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욥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원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과 시원하게 대화하실 수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중재자를 원했습니다. 욥이 원한 중재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중재자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재자는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그 중재자는 인간과 같은 분이어야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중재자가 나타나서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대변해 주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과 가까이 지낸다 해도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제한적이고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입니다. 저는 개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도 저와 대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개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와 인간은 서로의 존재는 인식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서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지만 완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16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

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과 같은 인간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먹으시고 사람들이 마시는 것처럼 마시시고 사람들이 자는 것처럼 주무시고 사람들이 주리는 것처럼 주리시고 사람들이 매 맞는 것처럼 매 맞으시고 사람들이 욕먹는 것처럼 모독당하시고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친구를 사귀시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류에 속한 인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같은 인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의 손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딤후 2:5) 성경에 의하면 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한 중재자가 계십니다. 이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 중재자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 안에 인간의 육체를 하나 준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5에서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거룩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눅 1:35). 마리아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생성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 거하실 육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 안에 들어와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시장에 가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목수일을 하셨으며,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뱃머리에 기대어 주무셨고,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으며, 그 몸 안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밤과 삼일 낮이 지나고 나서 죽었던 그 몸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입으신 채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몸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분은 분명히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여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놀라운 진리를 몽땅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과거에만 중보자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중보자이십니다. 과거에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중보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5을 보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몇 명의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서는 몇 명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몇 명이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나 소년이나 소녀라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모인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신을 만든 창조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신학교를 나와야 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거의 이천 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는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 저택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녹화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의 구원자께서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이 사람은 항상 계시므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히 7:19-24)

율법의 체계 아래에서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일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지성소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종교적이고 독실하고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 체계 아래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계속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수명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사람들은 그를 땅에 묻었고 땅에 묻힌 그 대제사장의 몸은 계속 땅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지난 이천 년 동안 신약교회의 대제사장은 단 한 분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왜 교회에는 이천 년 동안 단 한 분의 대제사장만 있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죽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살아계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오는 사람을 위해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냥하기 위해 산다고 얘기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를 하기 위해 산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인터뷰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나를 믿는 사람들을 중보하기 위해 사노라.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사노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 요청을 받은 사람이 요청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특히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는 더욱 그래야 하지만 때로는 기도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한 모든 사람이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저를 위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해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빠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어떤 일보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 해 주시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 8:26)

우리 주위에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낫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의 친구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가 고통 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암에 걸렸다면 저도 낫기를 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면서 제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목사님은 전혀 다른 주제를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목사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롬 8:26-27)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저를 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저를 도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개인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저의 마음을 살피셔서 저의 동기가 무엇인지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과 동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저를 도와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서는 그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로 가져 가십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회에서는 위원회가 열립니다. 어떤 안건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 안건은 폐기됩니다.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안건은 위원회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수많은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아예 하나님께 전달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만일 잘못된 것을 구하거나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성령님께서서는 그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 전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동기로 구하면 성령님께서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헌법인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서는 그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들 하나님께 전달하지 않고 폐기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아들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20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같은 장에 있는 9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

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요한이나 누가나 마가가 기록한 것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제시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4:13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서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구를 성령님께서 취하셔서 여러분의 중재자이신 아들 하나님께 제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 목록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무슨 일인가? 그대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일만을 하지 않았는가? 무엇이든 말해 보시오.”

성경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약 1:17)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를 취하셔서 아들 하나님께로 가져가실 것이며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갔듯이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갖기 원하는 쇼핑 목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구원자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구원자의 뜻이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요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요 14:13).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해 줄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 습니다(욥 9:30-33).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딤후전 3:16).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해줄 중재자는 단 한 분이시며 그분은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 수님입니다(딤후전 2:5-6).

구약의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히 7:19-24).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 해 주고 계 십니다(히 7:25).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요 17:9,20).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롬 8:26-27).

수많은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가 아예 하나님께 전달되지 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제시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을 위해 그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요 14:13).

만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제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께서로부터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기도를 취하셔서 아들 하나님께로 가져가실 것이며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 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가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갔듯이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제3장 이기심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기도가 왜 응답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원하는 쇼핑리스트를 열거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기도는 결코 응답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결코 아버지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가장 큰 명령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명령은…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0-31)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이 두 명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것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도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이기적입니다. 모든 이기심은 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

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바로 잡아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이 편안하게 교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형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형제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나 하나님이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사랑할 뿐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분이 언짢으니 그 사람을 바로 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온 세상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고작 자신에게 돈이나 자동차를 주시거나 자신을 편하게 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해 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육신을 위한 것만을 구해놓고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결국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자 기도해 봐야 아무 쓸모 없다고 단정지어 버립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읽어보면 제자들이나 사도들 중 누구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모든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이

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며 영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 인 삶과 이기적인 행위와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기도는 모두 같은 부류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99%의 기도가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1%의 기도만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 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 히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자신 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나 들짐승도 돌보신다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기도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자신의 구원을 빼앗지 마시고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 을 구속의 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하늘에 저 택을 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구원자께서 그 령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구원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님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을 통해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을 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엡 1:15)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7:9).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이 이렇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기도는 결코 응답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결코 평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거나 가난을 구제해 달라고 하거나 범죄를 없애 달라고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며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 그대로 악한 자들이 더욱 악해지고 사람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일주일에 칠일 동안, 하루 이십사 시간 동안 아무리 목주를 돌리며 기도해도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서는 그러한 기도를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하지 않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기도를 결코 아버지께 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이 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지난 이십 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요즘 자신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자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형제가 찾아와서 B형제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C형제가 찾아와서 D형제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D형제는 찾아와서 E형제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E형제가 찾아와서 F형제의 문제점을 이야기 합니다. 목회는 유치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유아적인 기독교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다른 형제로 인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구원받게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와 함께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군사임에 감사 드립니다. 저 형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함으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형제를 향해 쓴 뿌리를 갖거나 불만을 품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형제로 인해 감사를 드리면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한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님에 감사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형제들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써버리는지 아십니까? 다른 형제들에 대해 불평하는 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주님께 형제들을 고소하는 데 가까운 기도 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만일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갈 교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결점과 부족한 점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음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거리설교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게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예배로 끝내지 않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은 더욱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형제들로 인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엉망

이 되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빌리 그래함의 오류를 지적하는 책자의 수만큼이나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가 회복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이단 종파가 교회를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다른 형제를 지적하고 있는 형제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다른 자매를 지적하고 있는 자매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망칠 수 없습니다. 자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의 첫째 특징이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1:21). 교회가 망가지는 원인은 우리가 다른 형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리지 않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저도 다른 형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17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간구한 둘째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이 모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들이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들이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해 달라고 기

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바울은 단순하게 다른 형제들이 성경을 많이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관련 구절을 알게 해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논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구한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이 구한 것은 단순한 성경지식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 알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였는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다른 형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알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것처럼 지혜롭게 되어 직장 동료들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할지 몰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자신을 귀찮게 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다른 형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를 바로 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잘못을 행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쉽습니다. 잘못을 행하는 형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즉시 바로 잡아 달라고, 그 사람을 쳐서라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못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잘못을 행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가 잘못을 행했을 때에는 즉시 그 형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18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바울은 다른 형제들이 더 많은 조명을 받게 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만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만 하고 비난하기만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이 육신적이고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것을 형제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만큼 다른 형제들도 주님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다른 형제를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다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을 따르기보다 육신을 따라잡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형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함께 무릎을 꿇고 다른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두 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며, 둘째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과 빌립보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역교회로 모여 부딪히고 배우고 섬겨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친한 한 두 사람과만 교제를 나눈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만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8-29)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말을 자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구두담이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어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날 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성공하여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쫓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빌 3:13-14)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결승점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것이며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가장 큰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일들은 작은 일이며 하찮은 일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여시어 알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던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병에서 나아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기쁘게 해줄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 주시고 방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된다면 한눈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히 5:7-9)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었으며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인간의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

는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매를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순종으로 구속 사역을 완수하여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허들이 아니라 결승점에 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허들을 바라보고 달렸다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만 장애물을 제대로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은 우리가 결승점(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지 혹은 장애물(세상, 고난)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운 때와 고난으로 인해 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18에서 다른 성도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공동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조그마한 물질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먹이시고 지구로 발받침을 삼으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는 황금을 하늘나라에서는 보도블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잊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집의 타일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조그마한 금반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멈추고 금반지를 줍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진주로 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벽이 보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돈으로 인해 온종일 걱정하고 망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비평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할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믿고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굶어 죽기 전에 미리 먹을 것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터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상속재산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19-20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시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닥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지탱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자신들의 믿음이나 자신들의 신실함이나 자신들의 인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임을 알게 해 주시고 그 권능이 자신들 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십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죄를 가지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부터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일으키셨던 그 동일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형제를 비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하나님께서서는 저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나 군대나 왕이나 통치자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국과 정부와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옥의 권세에 패배 당하기라도 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거듭났으며 온 세상과 함께 멸망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뚫고 유유히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

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귀도 그 형제를 파멸시킬 수 없고 어떠한 상황도 절망적일 수 없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가 승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교회도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특히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일학교의 머리이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머리이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집사들의 머리이시고 목사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면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하거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에 2만개의 교회가 있는데 1999개의 교회가 여자를 목사로 안수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지지한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집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교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거짓 형제들이 와서 교회를 망칠 것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 로마도 아니었고 세상도 아니었으며 어떤 이단 종파도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형제들이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통치하시며 법을 정하시고 주인이 되시며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니다. 단 하나도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것을 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되면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를 위해줍니다. 팔이 다리를 대적하거나 발이 허벅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발에 상처를 입히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거침이 되면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자매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되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게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겨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험담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징계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요 14:14)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험담하기는 그만두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는 가장 큰 명령 두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 12:30-31).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이 두 명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 대부분의 기도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다른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엡 1:16).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형제로 인해 감사를 드리면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 자아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엡 1:17).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형제들이 더 많은 조명을 받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엡 1:18). 바울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에 함께 모여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로 모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롬 8:28-29).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거나 성공하여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삼아야 할 가장 큰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림 되는 것입니다(빌 3:13-14).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히 5:7-9). 좋은 환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배우셨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허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고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이 발에 상처를 입히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거침이 되면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제4장 믿음의 부족 때문에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기심 때문이라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약 4: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하는 기도는 결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응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의심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신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신들이 죽으면 하늘 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보여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무엇인지 공부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엨 3:13-21)

이 본문을 통해 다시 신약성경에 나오는 기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에는 단 한번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 한 마디도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는 어린아이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것 같은 기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미래에는 전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세계를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게 해 주시고 짐승의 표 같은 것도 없게 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마 7:13-14)고 말씀하셨다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넓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3:12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며 적절하게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낙심한 사람은 제대로 설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핍박으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처참한 상황으로 인해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과 문제와 불확실과 낙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상에서의 유혹으로 인해 쓰러진 지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상 교육과 정치와 마귀와 이단과 거짓 종교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진 지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종교의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였을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그는 주식시장을 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장잔고를 보고 있던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유엔이나 군대를 보고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9-12절)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을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바로 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바른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교육 문제나 국방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한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

다.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한탄해야 합니다. 할리우드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학교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낙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능을 바라봤기 때문에 낙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아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나 악한 사람이나 정부나 마귀로 인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이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선거에서도 자신들이 부자가 되게 해 줄 사람을 뽑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잃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V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보여줍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을 보여줍니다. 불행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를 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요 14:1)고 말씀 하셨습니다. TV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TV를 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짓는 죄는 모두 2천년 전 과거의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갑자기 악해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쭉 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14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엡 3:14-15)

여기에는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우주 저 편에 있는 알지 못하는 존재에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설교에서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마 7: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빵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선을 구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줄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마 7: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며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아시고 자신이 친히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14-15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동등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했지만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와 자녀가 완전 동등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자랑인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배교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교회의 회원 수준으로 격하시켜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근거로 주님께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었으며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를 언급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복음 17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

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눅 17:10)

우리가 우리인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기도하기에 합당한 구원자가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문을 하거나 명령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 중에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을 게 있다면 그것은 지옥에서 고통 당하는 형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를 부자가 되게 하시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너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하시며” “그분

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너희의 정욕을 채워주시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간구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성도들의 걸사람의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성도가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주시는 능력으로 다른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락함을 위한 것이거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이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대부분 응답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입니다.

저는 암으로 죽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지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건강한 몸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기뻐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

고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했지만 다른 사람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매 순간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산다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겨낼 것이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일로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실제 생활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

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일 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 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 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25-33)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닌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

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는 데 우리의 기도시간을 낭비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그리고 또 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빌 4:15-16)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은 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17-18절) 빌립보 성도들은 선교사역을 위해 희생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복음전파를 위해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복음전파를 위해 자신들의 물질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9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사람들이 왜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며 선교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린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 떼를 먹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고전 9:7) 군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군복이나 군화나 무기를 자기 비용을 들여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정부에서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속사람이 전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엡 4:17-19)

18절은 이상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17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는다고 하고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넓어서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매우 깊어서 그것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수였을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원수였을 때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면 자녀가 된 지금은 무엇을 야끼고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17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고백했습니다(시 1:2-3).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은 사람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나 하늘이나 지옥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약 1:17)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요일 4:9)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머리로 알 수도 있고 인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혀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엡 3:19)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에 대해 수많은 구절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육신이 평안해지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음으로 알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면 우리는 최고의 부모가 되고 최고의 남편이 되고 최고의 아내가 되며 최고의 교회 회원이 되고 최고의 시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통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관심이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들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에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의 삶을 주관하게 해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살게 해 달라고 간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직장을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만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 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며 응답이 약속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교회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약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에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세상이 아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했던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성도들의 겉사람의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 6:25-33).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물질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빌 4:15-19, 고전 9:7).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달라고 구했습니다(엡 4:17-19).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5장 사역자를 위한 기도

우리는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응답이 보장된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기도 중에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어떤 기도도 돈을 구하거나 육체의 건강을 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더 잘 대우해주기를 구하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으며 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 지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서로 돌보게 해 주시고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지체로서 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고 우리의 기도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간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일시적인 물질적 풍요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적은 시간만을 할애할 뿐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기도생활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사역을 위한 기도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침례교인들이 이러한 얘기에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적 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게 하시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4-8)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인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¹ 영어 표현 중 “Called to preach”라는 것을 흔히 “목사(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성경적 의미는 “복음 선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며 구원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역주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목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할 뿐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곳에서만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오직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한다면 그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서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해 주신 일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 할 때 단순히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목사가 그들의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목사들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복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의 사역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칠십 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눅 10:1-2)

이것은 단순히 사도 시대나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가 아닙니다. 사도 시대에만 수확할 것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수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오직 적은 비율의 사람만이 구원받고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데 반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수로만 봐도 예수님 시대의 인구보다 현 시대의 인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도 수확할 것이 많았다면 지금은 훨씬 더 수확할 것이 많은 게 분명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할 것은 많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수확할 것은 많습니다. 문제는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적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바로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수확할 것은 많고 일꾼들은 적으니 너희는 빨리 나가서 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수확할 것은 많고 일꾼들은 적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 대한 부담 없이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담 없이는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확하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 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사역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인가 받은 신학교를 나온 목사를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해 보고 싶은 사람을 보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인가 받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목사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남자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전할 여자를 보내주시고 선교지로 갈 사람을 보내주시고 도시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사람을 적절한 곳으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와 주일학교와 가정과 선교지에 적절한 사람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에 있게 해 주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목사와 부목사와 찬송 인도자와 주일학교 교사와 복

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확의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나라 곳곳에 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신학교 졸업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며 교회에서 월급이나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하며 수고하고 추수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단순히 성도들과 노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쟁기를 잡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확의 주님께 기도하여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합니다.

골프 코스보다는 혼들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 중 가보다는 복음 전도 사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보다는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꾼은 명령을 내리거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추수를 수확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서는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골 4:2-3)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하루 세끼가 제공되고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칼라 TV가 있는 미국의 주립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천년 전 중동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

다. 그 당시의 감옥은 아주 끔찍한 곳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가기 원치 않는 끔찍한 곳입니다. 당시의 감옥은 인권이라고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기도해 달라는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한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수확하기 위해 보내신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에 다섯 시간씩 매일 복음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이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은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지라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 일은 결국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좋은 신앙서적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집안에 편안하게 있는 것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은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험담하며 그들을 향해 쓴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결코 기쁨으로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아무런 도전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군가 누군가를 위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골 4:4)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게 해 달라고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책망인지 부드러운 위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강하게 말해야 할지 부드럽게 말해야 할지 우리는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사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설교하지만 사실 기도에 대한 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신에게 어떤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목사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모두 기록된 이후에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전하라고 하신 적이 없으며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음성이 들렸을 지라도 그냥 무시하는 게 영적으로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전날 과음을 했던지 아니면 무리를 했던지 잠이 부족해서 그런 소리가 들린 것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른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추수를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바르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중 넷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엡 6:18-20)

바울이 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무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상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말을 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와 죽음과 지옥과 구원과 대속의 피와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을 섞어 가며 이야기하기도 하고 불친절하게 이야기 하기도 하며 화를 내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중하고 친절하고 상냥하면서도 동시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가 비웃건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축구팀을 자랑하기도 하고 가수를 자랑하기도 하며 어젯밤에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말하거나 생각하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추수의 주님께서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 받았습니다. 누구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성경을 기록하고 마르스 언덕에서 복음을 전하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에베소의 우상숭배자들과 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했던 것은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은 십자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처형 기구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위에서 죽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알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주저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육신에게 거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이지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신에게는 본성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본성에 속한 일이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딤후 2:1-2a)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2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과 모순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2절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우리는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망하기를 위해 기도하거나 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할 일을 해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부족의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족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선교사들을 방해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슬림 국가들이나 남미의 국가들도 선교사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선교사들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세금을 걷든, 전쟁을 준비하든, 다리를 놓든, 선거를 하든 자신들의 할 일을 하는 데 바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상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핵전쟁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핵전쟁으로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저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건물에서 뛰어 내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걱정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걱정합니다. 저는 이 세상 정부

가 바른 일을 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들에게서 그 더러운 손을 떼기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고 박해 받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방해자들로 인해 주님의 일꾼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롬 15:30-31a)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원수들로 인해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실한 사역자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면 누군가 나타나 그 일을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어서려 하면 마귀는 여러분이 주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말하려고 하면 마귀는 여러분의 입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막지 못하게 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31절의 뒷부분도 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롬 15:31b)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교회에서 잘못을 행하는 사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잘못하는 사람을 보거든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번 지적한다 해도 결코 바로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우리의 조언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우리의 조언과 책망과 설교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정부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13:7)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떠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간증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지키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그들의 삶이 거침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받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간증을 잃는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십 년 동안 쌓은 간증도 단 하룻밤의 죄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잃은 간증은 이십 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기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바른 말을 하게 해 주시고 바른 방법으로 말하게 해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 정부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원수들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행 1:4-8).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목사나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눅 10:1-2).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골 4:2-3).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시간낭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골 4:4). 바른 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엡 6:18-20). 친절하고 상냥하고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와 죽음과 지옥과 구원과 대속의 피와 거듭남에 대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조용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딤후 2:1-2).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방해자들로 인해 주님의 일꾼들의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롬 15:30-31a).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롬 15:31b).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고후 13:7). 우리는 서로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살전 5:17).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바른 말을 하게 해 주시고 바른 방법으로 말하게 해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 정부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원수들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6장 반복해서 하는 기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26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6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마 6:7)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7에서 헛된 반복을 금지하셨습니다. 헛된 반복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은 특정한 기도문을 열 번 외우는 것이 다섯 번 외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도문을 백 번 외우는 것이 오십 번 외우는 것보다 더 응답 받을 확률을 높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단 한번이라도 헛된 말로 기도를 하면 그것은 헛된 기도라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헛된 말로 이백 번을 기도해도 그것은 여전히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헛된 말을 하는 것에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수백 번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

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시고”(마 26:36-44)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할 때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같은 기도를 같은 말로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루에 같은 기도를 백 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단 한번도 하지 마십시오.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헛된 반복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게 해 달라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십분마다 한 번씩 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라면 하나님께 매달려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반

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는다면 몇 번을 반복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말의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르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해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7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본문 두 개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과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요청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낙담하거나 용기를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으로되...**”(약 5:17)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passions)**”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feeling)”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봤을 때는 마음이 한없이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벨로부터 자신을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두려워하며 도망쳤고 숨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엘리야의 감정은 그가 보는 것으로 인해 좌우되었습니다. 오바다가 왕궁

에 거하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는 그를 책망했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낙심하여 자살을 생각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공부하면 대부분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과의 대결과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보다면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약 5:17)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에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그는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는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는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잠시 플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

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골 3:1)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골 3:2-3)

열정²(passion)이란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애착(affection)이란 외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출장을 가셔도 간음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애착이 아니라 열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남편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애착이 아니라 단순한 열정이라면 언제든지 부정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착을 두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아내에게 애착을 둔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손잡고 있을 때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착입니다.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열정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스포츠와

²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성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역주

TV 드라마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삶을 통해 그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화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전 11시나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열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 받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전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열정이 아닌 애착 위에 세운 가정이라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 흥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애착(affection)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청년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명의 형제들과 함께 있는데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 최근에 구원받았으며 저의 설교 테이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는 영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삼 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백만 명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이내 실망하고 열정이 모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변합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뒤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애착을 뒤야 우리의 마음도 견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와서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으로 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약 5:17-18)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삼 년 육 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대환란 때 엘리야가 돌아오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겪고도 엘리야는 열정(passion)에 의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교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가 열정이 아닌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왕상 18:41)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가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면 멈추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와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꿰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일곱 번 다시 가라, 하니”**(42-43절)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아합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며 기도에 응답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듯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응답 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를 구했지만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만일 이때도 엘리야가 열정으로만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꿇었던 무릎을 다시 펴고 일어나 산을 내려와서 아합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정으로만 일했다면 거기서 모든 걸 멈췄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남편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아내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열정에만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면 곧 그만두고 말 것입니다.

43절의 뒷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일곱 번 다시 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반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열심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종이 일곱 번째 가기 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거듭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을 쯤에는 엘리야의 종은 이미 지쳤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섯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낌으로만 주님을 섬겼다면 여섯 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매우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는 확신을 거의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이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열정과 느낌과 감정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가 여섯 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점점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하늘에 애착을 갖는 것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을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이나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매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섬김과 생활에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조차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응답도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애착을 하늘에 두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주변 상황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애착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리라고 믿었고 하

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으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섯 번이나 응답 받지 못했지만 일곱 번째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애착은 구름이나 바람이나 비에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의 애착은 하나님께 있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아합의 생각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으니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그가 처음 기도가 응답 받지 못했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면 아무런 비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합도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첫 번째 기도가 응답 받지 못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 받는 아합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간증이 모두 자신의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합에게 간증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45절) 왜 큰 비가 내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큰 비가 내

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믿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거했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일곱 번 반복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이 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혀 낙담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거리에서 설교를 했고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했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열정으로만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진작에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머지 않아 지쳐 쓰러지고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애착을 두어야만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요동치 않고 주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필요한지 아십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누가 방해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17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여섯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일곱 번째에는 응답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스무 번이나 했지만 응답 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스물 한번째는 응답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열정의 끝은 낙심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애착을 두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분께 애착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애착을 두어야 하고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애착을 두어야 하며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7에서 헛된 반복을 금지하셨습니다. 헛된 반복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단 한번이라도 헛된 말로 기도를 하면 그것은 헛된 기도라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같은 기도를 같은 말로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약 5:17). “**성정(passions)**”이라는 것은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feeling)”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골 3:1-3). 애착(affection)이란 외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사랑입니다. 애착을 두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왕상 18:41-45).

헛된 반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조차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애착을 하늘에 두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기도를 일곱 번 반복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이 된 제자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7장 금식에 관한 성경적 교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범적인 기도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 그 어느 것도 쇼핑 리스트를 외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 오직 단 한번만 자신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세 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자신을 위해 간구한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모든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도움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반복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주님께 계속 해서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거나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연구하지 않는 교리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이 교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쪽에 있기에 인기가 없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식에 관한 교리를 공부할 것입니다. 신구약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 금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에 나온 기도에 관한 여섯 가지 명령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 열 가지 성경적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육체가 아닌 성령님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투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를 실행하느냐의 문제는 그 교리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가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약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코카인이나 마리화나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담배나 니코틴에 대한 말씀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러한 것들이 아닌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제에 대한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통제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선교를 지원할 돈이 없을 때에도 자신들의 배를 채울 돈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 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마 9:15)

성경에 의하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신랑이 없을 때에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

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신랑이신데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면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단 한번도 그들이 선하게 사는 것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신뢰하는 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마 23:23) 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은 자만심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십일조와 종교적인 집회에 참석하는 것과 자주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하고 행위는 없기 때문에 위선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말은 그대로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한 말은 옳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었지만 바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금식에 대해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금식은 초대 교회에서 실행하던 교리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에게 인수한 뒤 그들을 보내니라.”(행 13:2-3) 초대 교회에서 실행하던 것 중 하나는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고후 11:27)

성령님께서서는 여기서 바울이 굶주린 것과 금식한 것을 구분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음식을 먹고자 했지만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먹을 음식이 있었지만 먹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자신의 제자들이 금식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는 금식했습니다. 우리에게 본으로 주신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겠습니다. 성경은 금식이 건강한 혼인생활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전 7:5)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초대 교회의 본과 사도 바울의 본에 따르면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금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금식은 항상 음식과 음료에 대한 자발적인 거절입니다. 저는 지금 금식을 하면 건강 더 좋아진대거나 다이어트에 좋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인가를 먹기 원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함으로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은 무엇인가를 마시기 원합니다. 금식을 하므로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육신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은 육신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에게 내일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마 한 달간 굶은 사람처럼 음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런 음료도 마시지 않으면 며칠 동안 사막을 헤맨 사람처럼 음료를 구하게 될 것

입니다. 아마 냉장고가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환청이 들릴 것입니다.

저는 “금식을 통해 건강해지는 법” 혹은 “금식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같은 책을 도서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은 모두 넌센스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원합니다. 금식은 건강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전환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식사는 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 시장에 가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요리를 합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육신을 섬기는 데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섬기는 것을 잠시 멈추면(금식하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므로 얻게 된 시간(식사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금식을 하므로 얻은 물질로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명단을 만들어서 금식 지원자를 받지도 않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실행은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마 6:16-18)

하나님을 찾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금식한다는 것을 광고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수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영적인 체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평소와 다름없이 세수를 하고 몸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적이라고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통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굽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주린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

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네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터져 나오고 네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네 의가 네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네 후위대가 되리니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네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네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네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사 58:3-10)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만일 누군가 침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는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침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일 뿐입니다.

금식도 이와 같습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고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했다가 주님께 책망만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모이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며 온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면 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나서 금식을 해야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금식은 쇼가 아닙니다.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금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성경적 이유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5편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굶은 때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시 35:13)

시편 기자는 금식을 하며 자신의 혼을 겸허히 낮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만심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일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우주를 주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은 동물과 채소 쪼가리를 입 속에 넣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식료품점에 가서 캔 속에 들어있는 것이나 라면 봉지 안에 있는 것이라도 입 속으로 넣지 않으면 결국 죽어버리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자신이 능력 있고 강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지 않으신다면 영원한 잠을 자는 게 인간입니다. 며칠만 식사를 걸러도 모든 기력을 상실하는 게 인간입니다. 금식하며 자신의 혼을 겸허히 낮추었다는 것은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시 69:10)

금식을 하는 성경적 둘째 이유는 금식이 혼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후에도 동일한 죄를 다시 범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금식은 더 이상 육신을 만족시키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자신의 혼을 스스로 판단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징계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식사를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금식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배에서 빨리 음식을 넣으라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식사 대신 금식을 한다면 우리는 열렬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식사 대신 금식을 하면 우리의 기도생활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식사하는 것은 잊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금식은 식사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신호를 보낼 때마다 식사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뇌에서 밥을 먹으라는 신호를 보낼 때마다, “나는 오늘 식사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혼이 주님께 반역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 질 때까지 육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는 실

제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을 판단하며 징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금식은 혼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혼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신은 죄를 짓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제 시편 109편을 보겠습니다.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다.”**(시 109:24)

금식은 여러분의 육신을 약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 승리를 거둔다면 육신에게 더 이상 군량미를 공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은 육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욥 23:12) 저는 이 구절을 붙여놓기에 가장 적당한 곳은 냉장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는 이 구절을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간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다. 과자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다. 디저트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하지 않았습다.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음식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요? 아마 대부분 손을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는 데 하루에 세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데는 몇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음은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뷔페에서 식사하는 것과 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 선택하라고 하면 지체 없이 성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금식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영에 속한 사람을 먹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먹이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이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더 사랑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금식을 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나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전 6:7)

사람이 일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가 ‘입에 음식물을 채우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만일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단지 입을 위해서만 산 것은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는 사실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단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식사를 거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식사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선교사역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께로부터 “너는 입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았구나. 너는 음식보다 더 고귀한 것을

위해 살았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다시 이사야 5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 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사 58:6)

금식을 하는 여섯 째 성경적 이유는 죄를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하는 이유는 사악함의 결박을 풀고 죄를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욕을 이겨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거부하므로 육신을 부인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도 육신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주린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네가 네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7절) 금식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3세계에는 굶주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날을 굶주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굶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굶주리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그게 다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니다.

금식을 하므로 굶주리고 고난 받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때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냉장고에 먹을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식하고 싶을 때마다 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고 내일도 역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금식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알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에서 나머지 세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마 17:21)

이 구절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금식과 기도를 하고 나가 승리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라는 악한 사람에 의해 멸망 당하려 할 때도 에스터와 모르드개가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백성이 구출되고 원수를 물리쳤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 내려 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랜 세월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금식하며 기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도 찾아보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역시 그에게도 금식하며 기도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는 아홉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빌 3:18-19)

이 세상의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신들의 배입니다. 경배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배는 사모함입니다. 경배는 시간을 내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경배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 가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배를 위해 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배를 섬깁니다. 그들은 배가 내리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배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신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젓세마네에서 반복해서 세 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

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겠다고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것과 같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한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싶어하고 병이 들면 항상 즉시 고침을 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지는 십자가 같은 것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기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배를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살아 계시며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지 않고 바로 두 시간 동안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집에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출장 뷔페를 불렀다고 하면 출석률은 신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점심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내 배는 음식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for they shall be filled).”**(마 5:6) 바른 마음과 바른 방법과 바른 동기로 하는 금식은 의에 주리고 목마르도록 인도해 줍니다. 육신은 본능적으로 음식에 주리고 목말라합니다. 금식은 육신

의 주림과 목마름이 아닌 의에 주림과 목마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계기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은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shall be filled). 식탁 위에 풍성한 음식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의에 주리고 목말라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요약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통제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선교를 지원할 돈이 없을 때에도 자신들의 배를 채울 돈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할 시기입니다(마 9:15). 금식은 초대 교회에서 실행하던 교리 중 하나였습니다(행 13:2-3).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신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여러 번 금식했습니다(고후 11:2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초대 교회의 본과 사도 바울의 본에 따르면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금식은 항상 음식과 음료에 대한 자발적인 거절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

시는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무엇인가를 먹기 원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함으로 더 이상 육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쁜 사람도 식사는 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육신을 섬기는 데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섬기는 것을 잠시 멈추면(금식하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므로 얻게 된 시간(식사 시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금식을 하므로 얻은 물질로 선교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마 6:16-18).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삶을 살고 금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사 58:3-10).

금식을 해야 하는 10가지 성경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혼을 낮추기 위해 금식합니다(시 35:13).
- (2) 혼을 징계하기 위해 금식합니다(시 69:10).
- (3) 육신을 약하게 하기 위해 금식합니다(시 109:24).
- (4)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기 위해 금식합니다(욘 23:12).
- (5) 먹고 사는 데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지 않기 위해 금식합니다(전 6:7).
- (6) 죄를 그치기 위해 금식합니다(사 58:6).
- (7)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생각하기 위해 금식합니다(사 58:7).
- (8)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금식합니다(마 17:21).
- (9) 배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금식합니다(빌 3:18-19).
- (10) 의에 주리고 목말라서 주님께 채움을 받기 위해 금식합니다(마 5:6).



제8장 기도 응답을 막는 것들

우리가 만일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재자로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올려 드린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삶을 위해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나 흔히 듣는 기도와는 상당히 다른 기도였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는 항상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응답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지 저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루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대부분이 저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다는 이유로 거기에 기록된 거룩함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저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은혜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도 거룩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영은 거룩하신 영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거룩한 책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성경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39권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니...”(말 3: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지도 못한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살던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면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를 얼마나 더 바라시겠습니까? 구약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주의에 속박시키는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지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서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인의 지침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정해진 짐승을 희생제물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제사로 인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서신과 모순을 일으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서신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에서 바울 서신과 일치하는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만큼이나 그리스도인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찾아볼 말씀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구약성경에 나온 말씀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말을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시 66:18-20)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마 12:36)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은 주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언젠가 주님께서서는 달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사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아들이 아무리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도 방을 치우기 전에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아들의 말도 존중 받을 수 없습니다. 방을 못 치운 이유를 아무리 그럴 듯하게 댈지라도 자전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신 주님(주인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람이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중요한 구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

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무릎을 꿇고 “오 주님, 저는 오늘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눅 6:46)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고 성경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지 않고 죄를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바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기도응답해 달라고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기도에는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죄와 욕망과 탐욕과 우상숭배가 주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다면 결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교회에 바른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결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결코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울부짖지 않는다면, 그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결코 기도를 듣지 않

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목록을 만들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기도에 대해 성경공부를 해도 포기하지 않은 죄가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들으실 수 없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며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삼 년 육 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약 5:16-18)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은 전혀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누구나 기도하기만 하면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리로 알지만 전혀 실행하지는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 말씀을 드립시다. 그곳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들어가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깨끗한 손과 깨끗한 발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들림 받아 올라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 상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둘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서 안정이 없느니라.”(약 1:5-8)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의 어떤 말씀은 실행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은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은 좋아하고 다른 부분은 싫어하거나,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순종하고 다른 부분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가 충족되면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마 6:3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요 15:7) 주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나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땅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은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악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벧전 3:1-7)

성경은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0:13로 위로해 줍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무

엇인지 아십니까? 결혼하신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남편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보다 잘 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훌륭한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主)라고 부르며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제 형제님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가정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 원칙대로 가정을 인도하고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은 엉망이면서 교회에서만 영적 거장처럼 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 생활이 엉망이면 영적 생활도 엉망일

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마 18:15) 하나님의 말씀이 정중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누군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고귀한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마 18:16-17)

성경적 순서는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그에게 말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권면 없이 바로 교회에서 광고하므로 잘못을 범한 사람이 바로 잡힐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서서는 잘못을 범한 형제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네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네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마 5:23)

이것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군

가가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와서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네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맨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24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능하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몸에 속한 지체이며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팔이 발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과 다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도 동일한 머리의 지배를 받고 다리도 동일한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싫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요일 4:20-21)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다른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랑한다고 해 놓고 제 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수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제 딸을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하고 소리치니까 그가 저에게 “형제님 저는 형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사랑하면 제 아내를 때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면 저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두 마음을 품거나 가정 생활이 엉망이거나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 적대시 하고 있다면 결코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약 5:16)

순서를 잘 보십시오. 먼저 잘못들을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서로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먼저 관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방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

누고 기도가 방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요약

우리가 바른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지 의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것과 모순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성경에 나온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시 66:18-20). 만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눅 6:46). 성경은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약 5:16-18).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약 1:5-8).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5:7).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전 3:1-7).

성경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18:15-17, 마 5:23-24, 요일 4:20-21). 성경에 따

르면 오늘날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고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기도가 방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제9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오늘은 기도에 대해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 생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16도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위대하신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셨

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섭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주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고문하거나 하나님께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참 인간이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국과 그들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장을 넘기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벧전 2:21)

성경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 신약성경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

는 모든 일을 통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흉내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기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12살에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수셨습니다. 이외에 예수님께서 30세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들은 다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어

머니와 아버지께 순종하여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양아버지의 가게에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0세 전에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시며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1-22)

성경은 예수님께서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공적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만일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당연히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들 위에 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TV를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삼천 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

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성경도 읽고 세상적인 책들도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항상 모든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지상에 계실 동안 자신의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섬기기 위해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지매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눅 5:15-16)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심방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약함도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전체 무리를 뒤로하고 광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기력만 소진될 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는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큰 책임을 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로 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심방을 다니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날이 밝으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의 열둘을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눅 6:13)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 중에 열둘을 택하시고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회중의 투표로 사도를 선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열두 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성경은 야고보서 1:5장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રી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혹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시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 중에 누구를 사도로 선택해야 하는지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직장문제나 이사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그 밖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면, TV를 끄고 잡지를 덮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의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야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눅 9:19-21)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단순히 대언자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기초이며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께 대한 신앙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눅 9:18)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겨져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고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였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수고하고 심을 수 있지만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실행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성장하기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도 좋고, 설교도 좋고, 성경공부도 좋아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눅 9:28-29)

예수님께서서는 바다 위를 걸어 가실 때 영광스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닫힌 문을 통과하실 때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께 바른 찬양을 드리고 바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설교를 듣는 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문서사역을 열심히 하고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시매 그분의 제자들 중의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눅 11:1)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증언하고 거리에서 설교를 해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서는 시간 낭비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시간도 낭비를 하신 적이 없습니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공부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육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봐, 기도해 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눅 22:31-32)

누가복음 22:32에서 주님께서서는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겐세마네에 함께 갔을 때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공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데 실패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갈 때 소녀가 와서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

인하며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를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썩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벧전 1:23-25)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를 할 때에도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결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자신의 기도가 응답 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도와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만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망치는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몇 달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단지 몇 달간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

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저는 4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한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왜 40년간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 몇 달간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눅 22:39-43)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정도의 나쁜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쁜 일을 많이 당했다 해도 예수님께서서 당하신 것만큼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 시더라...”(눅 23:34)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대우를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배반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죽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바로 잡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공휼을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눅 23:46)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기도하시니 사람들이 배우러 왔고, 형제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 기도했으며,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기도하셨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완벽한 기도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나 나는 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들 하나님도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성경공부를 한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공부도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헛된 일이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헛된 종교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요약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벧전 2:21).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눅 3:21-22). 이와 같이 우리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눅 5:15-16).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눅 6:13).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약 1:5).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눅 9:18-21).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변화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눅 9:28-29).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우러 나아왔습니다(눅 11:1).

베드로가 수많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눅 22:31-32).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눅 22:39-43).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눅 23:34).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고 끝마치실 때에도 기도로 끝마치셨습니다(눅 23:46). 성경은 아들 하나님도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사무엘 김	104	3500
2	내일은 늦으리	홍성울	56	2000
3	하나님의 경고	홍성울	116	4000
4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52	12000
5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6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64	15000
7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8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64	8000
9	행복한 그리스도인	홍성울	40	1000
10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11	깊이 생각하라	홍성울	28	1000
12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13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4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5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6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7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8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9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20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21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22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23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4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5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6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7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8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9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30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31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33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32	15000
34 창세기 1:1-3 강해 (간극이론)	Jeffrey Tibbetts	96	4000
35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는가?	이우진	40	1000
36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7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8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9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40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41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92	7000
42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52	1000
43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김영균	28	1000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수	가격
1 구원은 죄사함 이상이다	Timothy Morton	64	2800
2 바람 아래서 뿌리고 구름 위에서 거둔다	이우진	128	5000
3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경 공부	Paul E. Heaton	88	4000
4 성경을 찾아보라	이우진	80	3000
5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4	1000
6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7 칼빈주의 비평	James W. Knox	96	4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17종과 소책자 28종 등 45종의 도서를 총 8만 8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한 권 당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

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2년 5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영균 목사

문서사역 후원 방법

- *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 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 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닉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닉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닉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옮긴이 : 이우진

-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성경 편집장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